



한전, 마침내 나주청사 설계 발주

전파연구소 설계 공모... 공공기관 이전 순항 해양경찰학교는 여수 이전 내년 예산 확보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한국전파연구소가 지난달 22일 본사사옥 설계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5일 한국전력공사도 청사설계를 발주하고, 여수로 이전할 해양경찰학교도 이전에 필요한 내년 예산을 확보했다. 4일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한전이 신청

사 설계를 국내외에 발주하는 공고를 5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특히 글로벌 에너지 대표기업으로서 상징성 있는 사옥 건립 및 창의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신청사를 나주혁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Land mark)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고위관계자는 지난 1일 최 의

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예산이 확보돼 있는 부지매입도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 이전을 자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또 이날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해양경찰학교의 여수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 137억원이 집행된데 이어 내년도연 536억원을 확보, 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10월 중 기본설계 입찰공고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적 공법으로 최첨단 교육훈련 시설을 갖춘 교사를 신축할 계획"이라며 "오는 2011년 814억원, 2013년 238억원을 들이는 등 총 사

업비 2천580원을 투입, 2013년까지 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우정사업정보센터가 터키방식으로 청사 건립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고 농업연수원도 청사 설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한국전파연구소가 본사 신축 설계공모 공고를 낸데 이어 28일에는 사업설명회를 마쳤다. 또 지난 4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나주혁신도시에 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6월엔 한전이 혁신도시 내 변전소 부지 4천926㎡를 매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가 R&D 예산 수도권 편중 심화

(연구개발)

최근 3년 39%→45% 매년 비중 늘어 광주·전남은 3%도 안돼 낙후 악순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과 연구인력의 수도권 편중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광주·전남의 경우 전체 R&D 예산이 채 3%도 되지 않아 미래 성장 기회마저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국가 R&D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 R&D예산 비중은 수도권이 2006년 39.6%에서 2007년 42.5%, 2008년 45.2%로 매년 증가했다. 금액으로도 2006년 2조5천641억원에서

2008년 3조7천843억원으로 2년새 1조2천202억원(47.6%)이 증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06년 20.5%이던 국가 R&D예산 비중이 2007년 22.0%, 지난해 25.5%로 증가했으며, 금액도 1조3천279억원에서 2조1천359억원으로 무려 60.8% 급증했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2006년 2.9%이던 국가 R&D예산 비중이 2007년 3.3%로 약간 증가하다가 지난해 2.9%로 다시 내려앉았다. 전남도 같은 기간 2.4%에서 2.0%로 예산 비중이 오히려 축소됐다. 금액으로는 광주의 경우 546억원(28.6%) 증가했으며 전남은 139억원(9.1%)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대덕특구가 위치한 대전

에 23.7%(1조9천890억원), 경남 4.8%(4천289억원), 부산 3.9%(3천293억원), 충남 3.6%(3천366억원) 투자에 비해 지방 투자 비중에서도 뒤떨어진다. 이와 함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지역별 연구원 수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2003년 12만309명에서 2007년 18만3천776명으로 52.7% 증가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2003년 7만7천822명에서 2007년 10만1천532명으로 35.3% 증가해 연구원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2003년 4천162명과 2천229명에서 2007년 5천452명, 2천357명으로 31.0%와 5.7%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 R&D 예산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면서 "이는 지방의 미래 성장 기회마저 빼앗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한국 경기회복 속도 G20중 6위

한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며 경기 회복 형태는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 최고 협의체로 부상 중인 G20 회원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평균 2.0% 포인트 증가한 가운데 한국은 2.5% 포인트 증가해 회원국 중 6위를 기록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가장 크게 상승한 회원국은 터키(6.4% 포인트)였으며 멕시코(4.7% 포인트), 일본(3.9% 포인트), 독일(3.8% 포인트), 남아프리카 공화국(3.4% 포인트) 순이었다. 이어 한국(2.5% 포인트), 이탈리아·유럽연합(2.2% 포인트), 브라질(1.9% 포인트), 중국(1.8% 포인트)이 10위 내에 포진했다. 한국은 경기 회복 속도에서 G20 내 6위를 기록했지만 경기 회복 형태를 보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1%에서 2분기 2.6%로 플러스 성장에서 또 다시 큰 폭의 플러스 성장을 이뤘다.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G20 회원국은 모두 개도국이라 선진국 클럽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좋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전남·북 금형산업 '광역 사업' 육성 호남권공동추진단 구성

광주시와 전남·북 3개 지자체가 금형산업을 광역형 사업으로 공동 육성한다. 광주시는 6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시, 전남·북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참여해 금형산업 호남권공동추진단(이하 공동추진단)을 구성한다고 4일 밝혔다. 공동추진단은 정부가 금형산업을 광역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예산 1천600억원을 편성함에 따라 이 사업을 유체

해 고부가가치 금형산업을 호남권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호남권 금형산업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 및 동남아의 저가공세에 맞서 시장다각화에도 나선다. 광주시는 정밀금형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전남은 신소재의 부품화 및 양산체계 구축, 전북은 핵심 부품성형 및 설계화 구축을 담당한다.

특히, 광주 지역 선도 금형기술을 전남·북지역에 전수하는 등 호남권 금형산업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의 광역형 사업은 7개 권역별(경인권, 충청권, 호남권, 대동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로 사업을 선정해 향후 4년간 국비 300억원, 지방비와 민간자본 각 50억원 등 총 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꼬리 문 귀경행렬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4일 막바지 귀경행렬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호남고속도로 익산분기점 인근 상행선(오른쪽)을 지나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헬기조종 : 광주시 소방항공대 박창순 대장, 이정곤 운항실장>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HeartPlus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비수면하여 심박동 24시간 기록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박동기
5분만에 심박동 기록 시작 HeartPlus ACQ-1000E
심박동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연구개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박동기
편의추진단기 사업 및 육성사업에 선정됨

nanom
www.nanomtech.co.kr